

#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과의 관계\*

## Maternal Knowledge of Childcare and Its Effects on Mother-Teacher Communication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안 선 희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Hee Ahn

###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knowledge of childcare and mother-teacher communica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40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at seven childcare centers in Seoul. Respond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ries of questionnaires reporting the important aspects of their childcare, the frequency of mother-teacher communicatio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bout childcare's structural and procedural characteristics were obtain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directors of those cent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mothers only answered 45.5% of questions correctly, and reported a lack of knowledge about childcare services in their respective centers. In particular, mothers didn't have information about caregivers (e.g, education, year of job experience, license, etc). Actual maternal knowledg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length of time which mothers were associated with their childcare and the frequency of mother-teacher communication.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ternal knowledge regarding childcare services according to mothers' educational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effective parent edu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mothers who want to enroll their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주제어(Key Words)** : 보육지식(knowledge of childcare), 어머니-교사 의사소통(mother-teacher communication), 보육서비스(childcare service)

**Corresponding Author** : Sun Hee Ahn, Major in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239 Fax: +82-2-961-0538 E-mail: shahn@khu.ac.kr

\* 본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기본연구지원에 의한 연구결과임. (KHU-20070638)

## I. 서론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2008년 말 보육통계에 의하면 만 0~5세의 전체 아동 274 만 명 중에 40%인 110 만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을 경험하는 영유아가 증가하면서 보육이 영유아의 발달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영유아에게 미치는 보육의 영향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으나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보육 경험의 유무보다는 보육의 질이 영유아의 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우리 영유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이려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좋은 보육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보육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가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보육을 선택하는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로서의 부모들이 질 좋은 보육이 무엇인지 알고 보육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지, 미흡한 지를 부모들이 제대로 분별할 줄 알면 처음부터 좋은 시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질이 낮은 시설은 소비자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보육소비자인 부모가 충분한 보육지식을 가진다면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보육의 질이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육의 수요자로서 부모들이 가지는 보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모들은 보육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뿐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은 부모들에게 보육의 질을 평가하도록 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실례로 Miller(1990)는 6개 보육시설에 대해 24개의 기준을 가지고 어머니들과 훈련받은 관찰자들의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들이 프로그램의 질을 상당히 과대평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객관적인 준거를 가지고 부모와 훈련 받은 관찰자들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 연구들에서도 부모들은 훈련된 관찰자보다 보육시설의 질을 더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Cyer, 1989; Cryer & Burchinal, 1997). Shpancer 외(2002)도 부모들의 보육지식을 조사하였는데 부모들의 응답을 보육시설에서 제공한 자

료와 비교하였더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보육시설의 안전 및 건강 측면에 관한 부모들의 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조차 보육시설의 안전과 건강 영역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Rassin, Beach, McCormick, Niebuhr, & Weller, 1991). 심지어 훈련받은 관찰자들이 낮게 평가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조사 결과도 있었다(Shinn, Phillips, Howes, Galinsky, & Whitebook, 1990). 그리고 미국과 독일 부모들에 대한 보육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부모들의 보육지식 수준은 문화나 보육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Cryer, Tietze, & Wessles, 2002).

이와 같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부모와 전문가의 관찰 결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부모들이 보육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부모들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Walker, 1991). 우선 부모들은 보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가 받는 보육의 질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한 보육시설을 오랜 기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정보가 부족한 것은 부모들이 보육프로그램을 관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부모참여를 격려하지 않아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기관에서의 부모참여가 매우 소극적인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실체에 관한 정보가 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를 직접 관찰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교사나 다른 종사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Cryer et al., 2002).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부모들이 얻는 보육지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모들은 보육실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흥미롭게도 그들을 대상으로 보육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부모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박영아, 2006; 이중은, 2005; 채영란, 정효정, 2005). 이러한 현상은 보육시설에서 자녀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고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이 제공된다고 막연히 가정하기 때문일 수 있다(Cryer & Burchinal, 1997).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만 의존한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해 왜곡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나 정보 부족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

는데 제한을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소비자로서 부모들이 보육 실체를 잘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부모들의 보육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외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그러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내용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보육 지식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보육서비스에 관한 부모의 지식은 부모참여 수준이나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 빈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고 보육 종사자들과 접촉이 잦으면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각종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즉 부모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자녀가 어떠한 경험을 하고 보육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부모 참여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보육교사와 부모간의 상호작용의 비율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화운, 최재숙, 2001; Britner & Phillips, 1995). 부모참여 활동은 특별한 행사 정도나 비전문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수준 또한 소극적이며 소통하는 내용 또한 단조롭고 제한적인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최미숙, 박영미, 2004). 이와 같은 배경에는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이 부모참여 활동을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짐으로 생각하고 이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Brand, 1996). 국내의 한 조사에서도 유아 교사들은 부모와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교실에서 부모와 함께 일하면 오히려 일거리가 더 늘어나고 부모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일하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선희, 2004). 이와 같이 부모-교사간의 의사소통이 빈번하지 않고 부모참여 활동도 소극적인 수준이면 보육의 효과를 높일 수 없을 뿐더러 부모들은 보육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지식도 부족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에 관한 부모의 지식이 보육교사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해보자 한다. 지금까지 보육지식을 조사한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실태만을 파악하거나 보육환경의 특정영역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부모-교사 의사소통과 보육지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에 관한 부모의 지식은 자신의 교육수준, 자녀의 연령, 보육시설 이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태도, 신념, 지식 등의 인지체계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양육관련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낮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 양육에 관한 지식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김정화, 1989; 오미연, 2005;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Benasich & Brooks-Gunn, 1996), 어머니들의 보육지식도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육교사와의 접촉빈도가 다를 수 있는데 유아보다는 영아의 어머니들이 보육교사와의 접촉 빈도가 높을 것이고 그것은 보육지식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사와 부모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아와 걸음마기 아동의 부모들이 유아들의 부모들보다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시간이 더 길고 빈도도 더 높았다고 한다(Endsley & Minish, 1991). 또한 보육시설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의 보육지식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고된 국외 연구결과(Shpancer, et al., 2002)가 우리 문화에도 일반화될 수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보육지식 즉 보육시설의 특징, 학급의 크기, 교사의 경력 및 학력이나 훈련과정과 하루 일과와 관련된 활동 등등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의 보육지식이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기간, 자녀의 연령,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본 연구에 의해 산출된 결과는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즉 부모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을 위한 소비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영유아기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은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의 보육지식은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소재하는 7개의 공립 및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 240명을 연

〈표 1〉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

		(N = 240)	
구분	빈도	%	
연령	30세 이하	39	16.5
	31-35세	96	40.5
	36-40세	89	37.5
	41세 이상	13	5.5
학력	고졸	102	42.7
	전문대졸	60	25.1
	4년제 대졸	60	25.1
	대학원졸	17	7.1
직업	전업주부	151	63.4
	자영업	8	3.4
	전문직	19	8.0
	사무직	18	7.6
	기타	42	17.6
자녀의 연령	1세	23	9.6
	2세	48	20.0
	3세	51	21.3
	4세	55	22.9
	5세	63	26.3
보육시설 이용기간	1년 이하	96	40.3
	2년 이하	70	29.4
	3년 이하	50	21.0
	4년 이하	18	7.6
	5년 이하	4	1.7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본 연구의 특성으로 보육시설은 임의로 표집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어머니들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어머니의 연령은 30대가 전체 7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30세 이하와 41세 이상의 비중은 각각 16.5%, 5.5%에 불과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동일한 비중(25.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63.4%)가 취업주부(36.6%)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의 연령 분포를 보면, 1세와 2세가 각각 9.6%, 20.0%이었고 3~5세의 유아기 자녀가 70.5%를 차지하였다. 현재 등록된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은 1년 이하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을 합하여 50.4%이었고 4년 이상은 9.4%에 불과하였다.

어머니들에게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가 될 만한 문항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1~3 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시된 응답 범주 중에서 집(직장)에서 가까워서 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보육내용이 좋아서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시설(물리적 환경)이 우수하거나 특별활동이 좋아서 라는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도구

### 1)보육지식

보육지식은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Shpancer와 동료들(2002)이 개발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

〈표 2〉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

구분	(N = 240)			
	1순위 빈도(%)	2순위 빈도(%)	3순위 빈도(%)	전체 빈도(%)
집(직장)에서 가까워서	89(38.5)	29(12.8)	34(15.0)	152(22.9)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53(22.9)	33(14.6)	38(16.8)	124(18.7)
보육내용이 좋아서	40(17.3)	41(18.1)	28(12.3)	109(16.4)
교사의 자질이 좋아서	20(8.6)	34(15.0)	42(18.5)	96(14.4)
보육료가 적절하거나 저렴해서	18(7.7)	42(18.5)	31(13.7)	91(13.7)
특별활동 프로그램(예: 영어, 미술 등)이 좋아서	3(1.2)	25(11.0)	19(8.4)	47(7.0)
시설(물리적 환경)이 우수해서	8(3.4)	22(9.7)	14(6.1)	44(6.6)
전체	231(100)	226(100)	226(100)	663(100)

주.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였다. 이들이 연구에 사용한 보육지식 도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의 크기, 교사의 경력 등의 구조적인 보육의 질에 해당되는 내용을 평가하며 비전문가인 부모들도 평가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구조적인 내용은 외부에서 관찰하기가 쉽고 발달적으로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맥락을 만들어 내는, 즉 과정적 특성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보육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육의 지식을 파악하는 적절한 도구로 판단되었다.

이 도구는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이므로 문화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문항은 삭제하였고 최종적으로 보육을 전공하는 교수의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다. 이 도구는 전체 20개 문항으로, 주로 보육의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특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집단의 크기, 교사-아동 비율, 교사의 학력 및 경력과 자격증 유형, 교사 이직상황, 일과계획, 프로그램의 유형, 평가인증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응답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거나 제시한 범주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답을 알지 못 하는 경우를 위하여 '잘 모르겠다'의 범주가 포함되었다. 채점은 보육시설의 원장을 통해 얻은 자료와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급의 아동 수를 물어 보는 문항의 경우, 정확한 인원을 답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pm 10\%$ 의 오차를 허용한 숫자까지 정답으로 간주하였다.

## 2)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 교사간의 의사소통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안선희, 2004)를 수정 보완하여 도구를 구성하였다. 이 도구는 전화, 면담, 이메일, 등하원시의 만남 등을 통해 어머니가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빈도와 보육시설에서 주관하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등하원시 담임교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교사-부모 간담회에 참석한다 등의 7개 문항이다. 반응은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내적일치도로 알아본 이 척도의 신뢰도는 .81이었다.

## 3) 인구학적 변인 및 보육시설 선택 이유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지위 등의 인구학적 배경과 자녀의 연령, 보육시설 입학 시기, 이용기간 등에 관한 내용을 물어 보았다. 그리고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집(혹은 직장)에서 가까워서, 시설이 우수해서, 보육료가 적절하거나 저렴해서, 보육내용이 우수해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예: 영어, 미술)이 좋아서, 교사의 자질이 좋아서,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이 있어서의 7가지 범주를 제시한 후에 순서

대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에 대해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 3. 연구절차

자료수집에 협조하는 기관의 목록을 작성한 후 연구 목적에 적합한 7개의 보육시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보육시설을 방문하여 해당 연령반의 교사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다음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설문지는 영유아를 통하여 부모들에게 배부되었고 회수되었다. 응답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부모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반송용 봉투에 미리 부착된 테이프로 봉한 다음 보육시설로 보내도록 부탁하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전체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240부로 회수율은 80%이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보육지식을 구성하는 개별 문항의 정답, 오답, 잘 모르겠음의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였고 정답의 개수를 오답과 '잘 모르겠다'의 개수로 나누어 난이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의 총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일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Scheffé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보육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

보육에 관한 어머니의 지식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정답률의 분포는 9.2%에서 93.3%로 나타났으며 질문에 따라 정답률은 매우 다양하였다. 전체 질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정답률 평균은 45.5%이었으며 정답률이 다소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제시된 문항 중에 학급구성 유형의 정답률(93.3%)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학급내 교사수(81.7%), 간식횟수(80.0%), 비상훈련 정기실시 유무(72.5%), 점심시간(70.8%), 오후 보육활동 내용(66.7%), 평가인증유무(55.8%) 순으로 정답률이 높았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률은 0.3%~80.4% 사이였으며, '잘 모르겠다'의 비율이 높게 나온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소지한 자격증 유형(80.4%), 교사의 학력(78.3%), 경력(72.5%), 응급처치 훈련유무(63.3%)에 대해 어머니들은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방법(50.0%), 보육프로그램의 특징(47.5%)

〈표 3〉 어머니들의 보육 지식 실태

(N = 240)

문항	잘 모르겠다	정답	오답	문항난이도
	빈도(%)	빈도(%)	빈도(%)	
전체 아동 수	69(28.8)	67(27.9)	104(43.3)	0.38
학급 내 아동 수	19(7.9)	78(32.5)	143(59.6)	0.48
학급구성 유형(혼합/단일연령)	2(.8)	224(93.3)	14(5.8)	14.0
학급 내 교사 수	11(4.6)	196(81.7)	33(13.8)	4.45
교사의 학력	188(78.3)	25(10.4)	27(11.3)	0.11
교사의 경력	174(72.5)	22(9.2)	44(18.3)	0.10
교사의 자격증 유형	193(80.4)	39(16.3)	8(3.3)	0.19
교사의 응급처치훈련 유무	152(63.3)	80(33.3)	8(3.3)	0.50
교사의 이직 상황	26(10.8)	128(53.3)	86(35.8)	1.14
점심시간	30(12.5)	170(70.8)	40(16.7)	2.42
간식횟수	5(2.1)	192(80.0)	43(17.9)	4.00
낮잠시간	48(20.0)	109(45.4)	83(34.6)	0.83
오후 보육활동 내용	51(21.3)	160(66.7)	29(12.1)	2.00
바깥놀이 횟수	84(35.0)	47(19.6)	109(45.4)	0.24
보육프로그램 특징	114(47.5)	52(21.7)	74(30.8)	0.27
문제행동 지도방법	120(50.0)	79(32.9)	41(17.1)	0.49
비상훈련 정기 실시유무	62(25.8)	174(72.5)	4(1.7)	2.63
상해처리절차	53(22.1)	99(41.3)	88(36.7)	0.70
평가인증 유무	75(31.3)	134(55.8)	31(12.9)	1.26
하루일과	93(38.8)	47(19.6)	-	-

주. 문항난이도는 비율이며 숫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문항이 더 어려운 것을 의미함

주. 하루일과는 정답 빈도가 아니라 '잘 알고 있다' 응답범주의 빈도이며 문항의 난이도와 정답률 평균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역시 '잘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중 31.3%의 어머니가 평가인증을 받은 사실 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다.

문항의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Shpancer 외(2002)가 사용한 방법대로 정답의 개수를 오답과 '잘 모르겠다'의 개수로 나누어 난이도를 구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19개 문항 중에서 1(해당 문항의 정답률이 50%를 의미)보다 더 큰 비율 점수는 단지 7개 문항에 불과하였다. 즉 학급구성 유형(14.0), 학급내 교사의 수(4.45), 간식 횟수(4.0), 비상훈련 정기실시 유무(2.63), 점심시간(2.42), 오후활동 내용(2.0), 교사의 이직 상황(1.14)이 1보다 더 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다면, 어머니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식은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 유형 부분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들로 하여금 보육시설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결과를 분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전체 240명 중 9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응답 내용을 몇

〈표 4〉 보육시설에 관해 어머니들이 궁금한 내용

구분	빈도	%
교사의 학력 및 경력, 자격증, 채용과정	77	51.0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22	14.6
하루일과	16	10.6
교육철학 및 프로그램 특성	15	9.9
급식관련	6	3.9
재정 및 운영관리	5	3.3
기타(반 배정, 부모참여프로그램, 자녀의 친구관계 등)	10	6.6
전체	151	100

주. 빈도는 중복 응답 빈도임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빈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교사의 경력과 학력 등(51.0%)의 교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14.6%), 하루 일과(10.6%), 교육철학이나 목적, 프로그램 특성(9.9%) 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이외에도, 소수의 어머니들이 급식 조리과정, 예산 운영내역, 상해처리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2.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어머니들이 보육교사와 의사소통을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문항의 평균이 2.97(*SD* = .71)로 나타났다(표 5). 응답 가능범위가 1~5점인 것을 고려하면 의사소통 수준은 보통 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등하원시 담임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유형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M* = 3.61), 특별활동이나 행사에 참석하고(*M* = 3.40), 정기적인 개별면담에 참석하는 활동(*M* = 3.30) 순으로 높았다. 보육시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M* = 1.46), 교사와 쪽지노트나 보육수첩을 주고받는 일(*M* = 2.84)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에 관한 문제로 담임교사와 전화를 하는 정도는 보통 수준이었다(*M* = 3.03).

3.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는 교육수준, 보육시설 이용기간, 자녀의 연령이 포함되었다. 먼저, 어머니의 보육지식이 학력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보육지식은 학력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보육지식은 ‘잘 모르겠다’의 개수와 정답 개수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고졸 및 전문대 학력의 어머니들보다 정답 개수는 높았고( $F = 9.42, p < .001$ ) ‘잘 모르겠다’의 개수는 낮았다( $F = 9.78, p < .001$ ).

어머니의 보육지식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기간과 자녀의 월령에 따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분석결과, 보육지식은 보육서비스 이용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보육서비스 이용기간은 정답 개수와는 정적 상관관계( $r = .21, p < .001$ ), ‘잘 모르겠다’와는 부적 상관관계( $r = -.25, p < .001$ )가 있었다. 즉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육지식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한 정답 개수는 많아지고 ‘잘 모르겠다’의 개수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자녀의 월령에 따른 어머니의 보육지식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 빈도는 어머니의 학력수준( $F = 11.23, p < .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표 6), 대졸 학력의 어머니들(*M* = 22.64)이 고졸(*M* = 19.20)과 전문대졸(*M* = 21.00) 어머니들보다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 평균점수가 높았다. 또한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 빈도는 자녀의 월령과도 유의한 상관관계( $r = -.27, p < .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어머니-교사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월령은 부적 상관( $r = -.27, p < .0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월령이 낮아질수록 교사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빈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의 보육지식과 어머니-교사 의사소통과의 관계  
어머니의 보육지식이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표 5〉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빈도

문항	<i>M</i>	<i>SD</i>
등하원시 교사와 접촉	3.61	1.03
교사와 쪽지노트/보육수첩 교환	2.84	1.28
교사와 전화 통화	3.03	.92
정기 개별면담 참석	3.30	1.12
부모간담회 참석	3.13	1.14
특별활동 및 행사 참석 (참관수업, 워크숍, 부모교육 등)	3.40	1.07
교사와 이메일 교환	1.46	.67
전체	2.97	.71

〈표 6〉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보육지식 및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빈도 차이

	고졸 <i>M</i> ( <i>SD</i> )	전문대졸 <i>M</i> ( <i>SD</i> )	대졸이상 <i>M</i> ( <i>SD</i> )	<i>F</i>
보육지식(정답 개수)	9.75(3.73)a	10.47(3.75)a	12.25(4.10)b	9.42*
보육지식(잘 모르겠다 개수)	8.26(4.43)a	6.90(4.13)a	5.51(3.72)b	9.78*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9.20(4.41)a	1.00(4.05)a	2.64(5.63)b	11.23*

주. 영문자는 Scheffé 검증 결과임  
\* $p < .001$ .

〈표 7〉 보육지식과 자녀월령, 보육시설 이용기간,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빈도와와의 관계

	자녀 월령	보육시설 이용기간	보육지식 (정답 개수)	보육지식 (‘잘 모르겠다’ 개수)
보육지식 (정답 개수)	-.03	.21*		
보육지식 (‘잘 모르겠다’ 개수)	-.04	-.25*	-.87*	
어머니-교사 의사소통	-.27*	.02	.47*	-.48*

\* $p < .001$ .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학력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7). 어머니의 학력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따라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보육지식 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표 6). 분석결과, 정답 개수와는 정적 상관관계( $r = .47, p < .001$ ), ‘잘 모르겠다’의 개수와는 부적 상관관계( $r = -.48, p < .001$ )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보육지식 수준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영유아의 삶에 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보육의 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육소비자로서 부모들이 보다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보육의 질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보육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부모들이 보육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식 실태를 알아보고 보육지식이 교사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지식을 물어본 전체 질문에 대한 정답률 평균은 45.5%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보육지식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문항 중에 학급 구성 유형, 학급의 교사 수, 간식 횟수, 비상훈련 정기실시 유무, 점심시간, 오후 보육활동, 교사의 이직현황에 대해서

는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었다. 이중에 가장 정답률이 높은 것은 학급구성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단일연령으로 학급을 구성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간식횟수나 비상훈련 실시 역시 자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되고 학급 내 교사의 인원이나 교사의 이직 등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 정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의하면 어머니들은 특히 교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 유형에 대해 정답률이 낮은 반면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 높았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자유기술식으로 물어본 질문에서 어머니들은 교사의 학력,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해 알고 싶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육하는 교사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어떤 전공을 하였는지, 보육경력에 어느 정도나 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교사의 배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 학부모들에게 교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현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 중에 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요인인, “좋은 어린이집이라는 평판을 들어서”, 혹은 “보육내용이 좋아서”라는 반응이 비교적 높았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나 보육시설을 평가할 때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과 같은 교사관련 변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공인숙, 한미현, 김영주, 2005; 이주연, 이사라, 2006).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보면 부모들이 보육시설 선택 당시에도 보육종사자에 관한 배경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부모들은 교사의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나 이에 대한 해답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규명될 것을 기대한다.

이외에도 어머니들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교사가 지도하

는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응급처치 훈련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응답한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교사와 관련한 문항만큼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서의 하루일과나 보육프로그램의 특징을 모른다고 응답한 어머니들도 40~50%나 되었다. 심지어는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보육지식의 실태 결과는 Shpancer 외(2002)가 조사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Shpancer 외(2002)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의 보육지식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육교사의 이직율과 훈련과정 등의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특성과 학급크기, 교사와 아동의 비율, 아동의 일과활동 등의 구체적 집단 특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 의해 문화적인 배경과는 관계없이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보육이 제공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들의 보육지식이 미흡한 것은 보육에 관한 관심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Cryer 외(2002)가 지적한대로,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보육 환경과 경험을 관찰하고 평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대개 부모들은 등하원이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부모면담 시간에 보육시설을 방문한다. 부모들이 등하원시에 매일 보육시설을 방문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더구나 차량을 이용하여 자녀를 등하원시키는 경우에는 보육시설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모면담 역시 한 학기에 한번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보육시설과의 접촉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다 보육시설은 대개 부모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잘 알지 못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보육교사와 의사소통하는 수준이 보통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소통 유형별로 보면 등하원시에 교사와 만나는 비공식적인 만남이 가장 빈번하였으며 쪽지노트를 주고받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접촉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등하원시 교사와 접촉과 특별활동이나 행사시 교사와 만나는 빈도가 1, 2순위로 나온 결과는 선행연구(안선희, 2004)와 동일하였다. 등하원시에 부모들이 교사와 접촉하는 빈도는 높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본다면 어머니와 보육종사자와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등하원시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사와 주로 일상적인 간단한 대화나 그날 아이의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누는 정도일 것이다(Endsley & Minish, 1991). 이와 같은 본 조사결과는 보육 전반에 관한 정보를 부모와 교

사가 공유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특히 보육시설은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경험을 연계하는 수단이고 바람직한 발달은 아동이 경험하는 환경들간에 연계가 있고 또한 가정과 보육교사간에 양방향의 의사소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Owen, Ware, & Barfoot, 2000)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식수준과 의사소통 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보육지식 수준과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실체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많아 여러 경로를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어머니들은 전문대학 이하의 졸업자보다 교사와 의사소통을 더 빈번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교사와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소비자로서 보육시설에서 주관하는 여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녀에게 제공되는 보육정보를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리고 예측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교사와의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었으며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들은 교사와 의사소통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보다 의사소통이 훨씬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Endsley & Minish, 1991)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교사와 소통하는 빈도가 높은 결과는 자녀가 어려서 언어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이 짧아서 혹은 자녀의 특성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어머니의 지식은 보육시설 이용기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즉 보육시설을 이용한 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지식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보육시설을 오랜 기간 이용하게 됨으로써 보육시설과의 접촉도 더불어 많아져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축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시설 이용기간이 보육지식을 예측한 것으로 보고한 Shpancer 외(2002)의 연구를 지지해 준다.

넷째, 교사와 의사소통을 빈번하게 하는 어머니일수록 그들의 보육지식은 높았다. 즉 담임교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보육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자주 참여하는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보육시설에 관한 정보가 많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이 실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방문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보육활동과 운영을 직접 관찰할 기회가 많아지고 교사들과 자주 접촉을 하다 보니 그들을 통해 보육에 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추측은 부모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이 유아교육의 질과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찰한 연구(성소영, 2007)에서 부모들이 교사들과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높았으며 유아교육기관의 다른 정보이용률도 높아졌다는 결론에서도 부분적으로 뒷받침된다. 따라서 만약 어머니들이 교사와 신뢰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어머니들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고 교사와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보육지식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아동의 옹호자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부모들은 질 좋은 보육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 등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부모로 하여금 우수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보육 소비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고 질 좋은 보육기준이 무엇인지를 부모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즘 각 지역사회마다 설립되는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질 좋은 보육의 기준에 대한 부모 교육과 더불어 보육시설에 부모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참여하여 함께 협력한다면 보육시설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은 부모와 대리양육자인 보육교사 간에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부모참여를 강조한다(Hayes, Palmer, & Zaslow, 1990). 미국의 Head Start는 부모참여가 상당히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전문가들은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 부모참여를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믿고 있을 정도이다(Olsen & Fuller, 2003). 적극적인 부모참여와 개방적인 부모-교사 의사소통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인식한 미국정부는 모든 연령의 교육기관에서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Fantuzzo, Tighe, & Childs, 2000).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문제에 관해 수요자이며 고객의 위치에 있다. 현대의 수요자는 단지 소비자적 위치에 있지 않고 참여를 통해 공급을 개선한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부모들은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인식하에 보육시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참여를 유도하고 부모참여 활동을 통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관계자는 보육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보육서비스에 대한 어머니들의 지식 부족은 부모들에게 보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보육시설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육시설 운영자는 부모들에게 보육환경이나 보육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부모들과 소통하는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입학 및 진급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홈페이지, 소식지, 가정통신문, 이메일 등을 통해서 교사에 관련된 정보나 보육환경에 관한 내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전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보육의 질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문항을 통해 어머니들의 지식수준을 조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으나 국내외에서 유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탓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못하고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을 조사하지 못하고 설문지에 의존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심층적인 내용을 조사하지 못한 제한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면접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보육지식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 등도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공인숙, 한미현, 김영주(2005). **보육학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화(1989). 영아발달에 관한 어머니의 기대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아(2006). 바람직한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어머니의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55-69.
- 박화윤, 최재숙(2001). 유치원에서의 어머니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1(4), 391-409.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보육통계.
- 안선희(2004). 부모참여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과 태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27-49.
- 오미연(2005).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종은(2005). 천안·아산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인식, 만족도, 보육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41, 111-136.
- 이주연, 이사라(2006).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기대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교사간의 지각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5(6), 905-917.
- 채영란, 정효정(2005). 영아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의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9(1), 239-256.
- 최미숙, 박영미(2004). 유아교사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대한 상호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9(2), 137-160.
- 홍순옥, 김성혜(2008).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6), 55-71.
- Benasich, A. 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3), 1186-1205.
- Brand, S.(1996). Making parent involvement a reality: Helping teachers develop partnerships with parents. *Young Children*, 51(2), 30-34.
- Britner, P. A., & Phillips, D. A.(1995). Predictors of parent and provider satisfaction with child care dimensions: A comparison of center-based and family child day care. *Child Welfare*, 6, 1135-1168.
- Cyer, D.(1989). *Infant child care*: Parent perception and child experienc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Frank Porter Graham Child Development Center, Chapel Hill, NC.
- Cryer, D., & Burchinal, M.(1997). Parent as child care consum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1), 35-58.
- Cryer, D., Tietze, W., & Wessles, H.(2002). Parent's perceptions of their children's child care: Across-national comparis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2), 259-277.
- Endsley, R. C., & Minish, P. A.(1991). Parent-staff communication in day care centers during morning and afternoon transi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2), 119-135.
- Fantuzzo, J., Tighe, E., & Childs, S.(2000).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A multivariate assessment of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Educational Psychology*, 92(2), 367-376.
- Hayes, C., Palmer, J. L., & Zaslow, M.(1990).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 Child care policy for the 1990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Miller, B., A.(1990). *The day care dilemma: Critical concerns for American families*. New York: Plenum.
- Olsen, G., & Fuller, M. L.(2003). *Home-school relations: Working successfully with parents and families*. Boston, MA: Allyn and Bacon.
- Owen, T., Ware, M., & Barfoot, B.(2000). Caregiver-mother partnership behavior and the quality of caregiver-child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3), 413-428.
- Rassin, G. M., Beach, P. S., McCormick, D., Niebuhr, V. N., & Weller, S.(1991). Health and safety in day care: Parental knowledge. *Clinical Pediatrics*, 30, 344-349.
- Shinn, M., Phillips, D., Howes, C., Galinsky, E., & Whitebook, M.(1990). *Correspondence between mother's perceptions and observer ratings of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Unpublished manuscript. Dept. of Psychology, New York University, New York.
- Shpancer, N., Bowden, J. M., Ferrell, M. A., Pavlik, S. F., Robinson, M. N., Schwind, J. L. et al.(2002). The gap: Parental knowledge about day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2, 635-642.

Walker, J.(1991). Public policy and the supply of child care services. In D. M. Blau(Ed.), *The economics of child car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접 수 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 2010년 11월 16일